組織管理의 活性化로 21世紀에 對備

東亞建設産業株式會社

1993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원자력 각계 여러분께 희망찬 새해 인사를 드리며 소망이 모두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는 대선을 치렀으며, 93년도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모든 부문에서 낡은 것은 과감히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건설은 이런 주변환경 변화 속에서 작년부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낭비요소 제거와 올바른 근무자세 확립 및 예의바른 생활로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동아인의 상 정립과 혁신적인 마인드(MIND) 제고를 통한 업무능률 및 생산성 향상촉구를 목적으로 한 「바른 자세 갖기 운동」에 범 그룹적인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93년도 새해에도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심화,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직장에 신바람나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1993년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므로 활성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개방화, 국제화의 대비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 개발과 신관리기법의 창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출한 중동 및 리비아 국가 외에 中國의 北京-홍콩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베트남의 철강공장, 인더스트리얼(가칭) 건설공사 등에 참여키로 합의서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베트남 진출은 급성장이 예상되는 베트남 및 인도차이나 지역 건설시장 진출에서 우리 한국이 日本, 臺灣 등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며, 세계적인 건설기업 동아건설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창조정신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91년 8월 준공한 리비아 대수로 1단계 공사를 이어 1,449km의 구간에 초대형 송수관을 매설하는 거대한 리비아 2단계 공사(공사금액 55억5천만달러)를 완벽하게 공사추진하여, 불모지 리비아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녹색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리비아인의 염원을 이루게 하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동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원자력산업의 초창기 주력업체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많은 경험이 축적된 우수한 기술인력 및 조직을 바탕으로 92년 5월 울진원자력 3, 4호기 주설비공사 기공식을 내외귀빈 및 원자력 관련 업체 임직원, 현지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현장에서 가졌습니다. 3호기가 98년 8월, 4호기가 99년 6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정지 및 본관 기초굴착공사가 약 95%에 이르고 있으며 준공까지의 잔여공사를 동아의 우수한 기술진이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아건설은 철저한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공정관리를 시행하여 안전한 원자력발전소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일치하여 노력하며, 원자력발전의 기본개념 이해증진과 원자력건설의 실무습득을 위하여 신규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각종 교육강좌 및 해외파견 등을 적극 확대 실시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공사추진에 착오없는 세계 제1의 발전소 건설에 노력할 것입니다.

동아는 명실공히 원자력산업 관련건설의 선두주자로서 모든 국민과 원자력안전에 인식을 같이하여 원자력에너지가 국민들에게 아끼고 사랑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분야에도 참여하고 또한 신규 발주하는 발전소 건설에도 적극 참여하여 동아의 우수한 기술력을 발휘할 것입니다.■